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참 불자”

월주 스님 미얀마 최고작위 수훈 기념법회 열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의 미얀마 최고 작위인 '사따마 조디까다자' 수훈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다.

금산사(주지 원행)는 9월 8일 본말사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실 송월주 대종사 미얀마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수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월주 스님은 지난 6월 불교계 국제개발구호NGO단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으로 10년 간 국제구호에 나선 공로로 미얀마 최고 작위인 '사따마 조디까다자'를 받은 바 있다.

월주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미얀마 정부로부터 받은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는 지구촌 공생회 1만여 후원자들과 기업 및 단체, 수많은 활동가들의 협력의 결실”이라며 “지구촌공생회 출범 10년을 맞아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지지를 보내준 모든 분들과 영예로움을 함께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을 구현하고 앞으로 온 인류가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정진하자”며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나와 같고 하나라는 세계일화(世界一花)와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을 구현하고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불국정토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 이어 “지구촌공생회의 미얀마 구호활동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공생회 활동을 높게 평가해준 미얀마 대통령과 정부, 국민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가난과 병고, 무지로 인해 고통받는 미얀

전주 금산사 500여 명 운집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지구촌공생회 국제구호 공로

마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자비행을 통해 미얀마가 진정한 불국토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여야 한다”며 “그것이 사따마 조디까다자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고 설했다.

한편 미얀마 종교부에서 추대하고 미얀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사따마 조디까다자'는 미얀마 종교부가 수여하는 최고 작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사따마 조디까다자'의 의미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본' '성자' (聖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993년 설립된 지구촌공생회는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네팔, 몽골 등 아시아 11개국과 아프리카 케냐, 아이티에서 식수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재난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008년 14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나르키스 태풍 피해 이후 재

난복구를 위한 식량지원을 시작으로 대한 불교조계종 화엄회, 화석죽회, 마하회 등의 후원으로 교육지원, 식수지원 사업에 약 10억 원을 투입해 8개의 학교와 12개의 생명의 물탱크를 건립한 바 있다.

월주 스님은 이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무궁화장, 조계종 포교대상, 사회포교분야 종정상, 민세상, 만해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을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찰로”

도심포교 방안 밝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 주지 원목 스님

“스님들에게 사람이 어루만지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업무가 사찰의 부동산,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집중이 되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광주 선덕사 주지 원목 스님(사진)이 9월 10일 선덕사를 도심 속 현대인들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가꿀 것을 밝혔다.

광주 선덕사는 2011년 前주지 행법 스님이 실상사 도법 스님에게 사찰운영을 맡기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원목스님은 “선덕사는 전통사찰이 아닌 포교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이 전개하는 선덕사의 새 포교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사찰고유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신도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도에 대한 포교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새 신도교육인 결연마하당, 어린이법회 및 일요 법회 활성화, 대학생법회 구성 등 새로운 불교신자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 번째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마을 사랑방 '산수재', 대안교육에 대한 자료와 도서를 전시하는 '대안도서관' 등을 마련한다. '산수재'는 마을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사찰을 방문해서 차와 문화, 예술을 즐기는 공간이다. 대안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책과 놀이공간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현대식 건물로 지어



진 선덕사를 분야별로 나누었다. 1층은 마을주민들과 공유하는 공간, 2층은 대중들의 주거와 강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대웅전이 있는 3층은 불교의 기도와 법회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1층의 마을주민들과의 공유공간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동네밴드', 영화제작소, 청년노래단, 귀농학교, 도시농부학교, 생협이 중 내용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시공간에서 실현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도시민들을 위한 문화사업 외에도 도시농부학교와 생협, 귀농학교 등 대안적 삶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도시농부학교는 좋은 먹거리를 찾는 일이다. 아파트 베란다와 주변의 텃밭에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스님의 새로운 사찰은 '우리절 우리마을, 동네절'이 되는 것. 스님은 “절 따로 마을 따로”라는 생각은 잘못된 출발이라며 “지역민들 함께가는 사찰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상 통한 성찰로 이웃 고통 함께 풀어요”



제1회 호남종교인 영성문화제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5대 종교의 전통을 함께 느꼈다.

9월 8일, 5대 종교 영성문화제

호남지역 5대 종교인들이 한데 모여 사회 갈등 치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호남지역 5대 종교계는 9월 8일 보성대원사(주지 정륜) 특설무대에서 '제1회 호남종교인 영성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5대 종교 성직자들은 “자기 종교에는 확신을 갖고 이웃 종교에는 배움과 동지애를 느끼며,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종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이웃의 고통과 세상의 문제를 풀어 가야 할 때”라며 뜻을 모은 취지를 알렸다.

이날 공연은 이웃 종교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5개 종교단체별 각 2개 팀들이 공연을 펼쳤다.

제1부 영성문화제마당의 첫 무대는 송지은 원불교 교부의 사회 아래 천도교의 천명공연(일포 선도사 외 3인)이 진행됐다. 이어 개신교 단체의 시낭송(김희옥 목사), 중창(고백교회 남성 중창단), 합창(수목회 목사들과 교우)이 진행됐다.

세 번째 무대로는 불교 청심행 보살이 보살춤을 선보였다. 오랜 기간 호남 지역에서 불교의 독특한 춤을 선보인 무용가 청심행 보살은 이날 대보살이 인간 속에 화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춤을 선사했다. 이어 한국의 전통무예인 수척치가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근세 5대 명창 중 한명인 정정열 기념 공연



익산시립풍물단의 국악공연에 이어 합창 음악 등이 진행돼 세대간 화합을 노래했다.

9월 7일, 익산 심곡사 산사음악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산사에서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익산 심곡사(주지 화평)는 9월 7일 심곡사 떡묵공연장에서 근세 5대 명창 중의 한명인 정정열 명창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 '가을이 오는 소리-합창에서 판소리까지'를 마련했다.

개그맨 박범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산사음악회에서는 예사랑무용단과 조은 사람 통기타 풍호회의 식전공연에 이어 익산시립풍물단의 국악공연, 임화영 명창의 남도창, 모보경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가 무대에 올려졌다.

이어 인기 혼성무엇 '한마음'의 양하영

이 출연해 히트곡인 '갯바위'와 '가슴앓이' 등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포크송을 불러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합창그룹 '왓선더 부리풀'의 공연은 젊은 관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했다. 'DJ Show'는 추억의 팝송과 포크송을 DJ 특유의 억양과 멘트로 소개해 중장년층의 관객들에게 옛 음악다방의 향수와 추억을 선사했다.

화평 스님은 “떡묵공연장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세대간 통합을 위해 판소리와 한국무용, 통기타 음악과 합창음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로 꾸몄다”며 “산사의 정취와 분위기에 취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어울림 대축제

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9월 8일 광주 하남체육공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를 펼쳤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네팔, 중국 등 5개국 노동자와 관련 불교단체들이 참여했다. 체육대회에서는 구기 종목, 레크레이션, 장기 자랑 등 화합의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립 정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송원대학교 및 불교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올해 4번째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인 무드라(31)씨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 오랜만에 네 팔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운동을 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된 노동과 외로움 속에서 타국살이를 하는 외국인 불자들의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9월 8일 광주 하남체육공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를 펼쳤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네팔, 중국 등 5개국 노동자와 관련 불교단체들이 참여했다. 체육대회에서는 구기 종목, 레크레이션, 장기 자랑 등 화합의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립 정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송원대학교 및 불교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올해 4번째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인 무드라(31)씨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 오랜만에 네 팔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운동을 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들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